

세

계

일

보

“한국 전통미술 꾸밈없는 생명력 독특한 매력”

첫눈에 반한 로버트 틀리씨

지금부터 15년전인 1993년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청자 등, 한국의 고미술품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는 벽안의 금발 미국인 로버트 틀리씨가 첼시에 한국고미술품을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koreanartandantiques.com)와 한국미술품 홍보를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안 아트 소사이어티를 이번달 1일자로 첼시에서 창립했다. 미국의 전통 포크뮤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스와 소울음악을 주로 작곡하고 제작하는 전문 뮤지션이기도 한 로버트 틀리씨에게 한국고미술품을 사랑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한국에 대한 문화적 배경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미국인을 첫눈에 반하게 한 한국의 고미술품의 매력은 무엇인가.

▲한국 고미술품에서 내가 보는 것은 기교가 아닌 '혼(魂)'이었다. 아마 당시 블루스와 소울음악을 다루는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한국 고미술품에 담긴 '혼, 즉 soul'에 금방 빠져들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한국고미술품에 빠져들기 전에,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경험이 있는가.

▲전혀 미술과는 인연이 없었다. 나는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지만, 뉴욕에서 주로 살며 음악을 해 온 사람이고, 브루클린에 있는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다. 한국미술품에 빠지고 나서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 미술계와 전통문화계 인사들을 만나 교류를 쌓고, 각종 강좌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 노력해왔다.

-많은 아시안 미술품 가운데서도 한국고미술품에 그처럼 깊이 빠져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전통 미술은 꾸밈없는 정서적 생명력이 담겨있다.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의 전통미술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미술품만의 독특한 매력이다. 한국인들은 이처럼 훌륭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이런면에서 나는 한국인들을 무척 부러워하고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한국미술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다지나 민화와 같이 옛날 한국인들이 생활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던 것들에 특히 마음에 끌

린다. 특히 한국인의 옛조상들은 자연과 너무나 합일되는 삶을 살아서, 심지어 나무 그 자체를 가공하지 않은 채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특히 흥미가 가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있는가

▲미국에서 한국전통미술의 유산 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미국인은 물론 재미교포와 교포 자녀들도 한국전통문화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의 전통미술품들을 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가

▲한국사람들은 성공, 돈 벌기, 돈 등등으로 메마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미술이란 바로 이런 메마른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고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혼'이 담긴 훌륭한 블루스 음악이나 소울 음악을 듣는것과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황귀화 기자>